

# 콩닥콩닥... 지원이 심장 잘뛰네

## 한국심장재단 후원 2만번째 새생명 얻어

"이제 지원이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난 11일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22일 퇴원하는 두산백기 박지원의 어머니 최나영 씨(28)는 마치 자신이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이었다.

지원 군이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지원 군 생후 1개월 무렵.

하루하루 지남수록 숨소리가 이상하고 손발이 파랗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 제주대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울대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팔로씨 4장'이라는 생소한 질병.

최씨는 인터넷을 뒤져 팔로씨 4장이 청색증을 동반하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며 수술만 하면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

지원 군 아버지가 처방으로 방황제를 판매하면서 얻는 월수입 70만



새 생명을 얻은 지원이를 보여 어머니 최나영 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원으로 생활하고 카드빚 14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지원이네 가족으로서는 수술비 마련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는 옛말이 맞았던 것일까.

인터넷을 뒤지던 최씨는 한국심장재단과 만나게 됐고 지난 2월 12일 후원금 지원을 신청했다.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한국심장재단측 연락을 기다리던 중 지난 2일 지원 군이 재단이 후원하는 2만번째 대상으로 선정돼 수술비 100%를 지원해준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지원이 수술비는 2만번째 수술을 기념해 지금까지 재단 후원으로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모금한 성금 1000만원으로 마련됐다.

박근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11일 김홍진 소아흉부외과 교수 집도로 수술을 받았으며 빠른 회복세를 보여 22일 퇴원했다.

어머니 최씨는 "지원이 숨소리가 정상인 것과 똑같이 팔리니까 너무나 기쁘다"며 "아이가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심장재단은 지난 84년 창립해 해마다 심장병 환자 1000여 명의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김인수기자